

전후 일본 남성들의 여성해방 인식

- 점령기 『婦人公論』의 언설을 중심으로 -

이은경*

exodian@snu.ac.kr

Contents

- I. 머리말
- II. 여성해방에 대한 우려와 냉소
- III. 미국 여성의 표상: 가사해방과 남녀평등
- IV. 새로운 시대의 일본 여성을 위한 계몽
- V. 맺음말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le responses and understandings toward radical policies concerning liberation of wome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1945~1952)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ritings by the male intellectuals published in Fujinkoron, a representative journal of Japanese feminism.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Fujinkoron would actively support the policies for women's rights, though the discourses in the journal basically agreed with women's liberation and equality of both genders, most of them showed negative reactions to the immediate realization for such ideas, and they were pessimistic about what was to come because they simply believed it was too early. We can find a number of reactionary and conservative opinions about US postwar policies. Not only that, even though those intellectuals pictured American women as adorable objects, their interests were focused on the convenience of their housework which was without an adequate understanding toward the lives of American and Japanese women. Even those who consented to women's liberation explained these phenomena with its connection to American patriotism, and hoped that women's liberation in Japan would not deviate much from the traditional areas of womanhood, suggesting that they expected a limited or gradual changes, instead of fully supporting women's liberation and equality between the sexes. Based on

*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전공은 일본의 근대사·여성 저널리즘·기독교 등.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수행하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과제번호 KRF-2008-361-B00006).

these findings, we may have clearer understanding toward the concerns and reactions of the Japanese people about the issues of women's liberation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Key Words : 婦人公論、女性解放、男女平等、男性インテリゲンチア

(Fujinkoron, the period of U.S. Military Administration, women's liberation,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male intellectuals)

I. 머리말

1945년 패전은 일본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했고, 패전국 일본에게 굴욕적인 과정이기는 했으나 한편으로 개혁 내용 중에는 일본인들도 마땅히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을 둘러싼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¹⁾ 수십 년 동안 일본 여성운동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고, 남녀평등이 선언됨으로써 가부장제가 폐지되었다. 일본 여성해방운동의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이 일본의 패전과, GHQ 주도로 이루어진 1946년 일본국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가노 미키요(加納実紀代)의 표현대로, 일본인에게 있어서 8.15란 “아버지(남자)는 분통히 여기고, 어머니(여자)는 안도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²⁾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시선을 빼앗긴다면, 전후 일본 여성의 실재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삶이 법률에 의해 지배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폭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남녀평등’은 외부세력에 의해 투하된 또 다른 ‘폭탄’에 비견될 만한 것이었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폭탄’을 마주한 이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반응했는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이를 좀처럼 수

1) 스ーザン・J・ファー(1987) 『女性の権利をめぐる政治』坂本義和編 『日本占領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2) “父(男)はくやしがり、母(女)は、ほっとする.” 鹿野政則(2004) 『現代日本女性史』(有斐閣、p.4)로부터 재인용.

용하기 어려웠던 당시 일본인들의 고민과, 또 이를 받아들인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삶에 적용시켰는가, 그 실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들을 향해 한 때는 ‘양처현모’가 될 것을, 또 한 때는 ‘군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강요했던 근대 일본을 경험해온 이들에게, 남녀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 본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전후 일본여성의 해방이라는 기존의 상식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婦人公論』을 주된 텍스트로 삼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대 일본 여성사에 있어서 『婦人公論』이 갖는 의미, 특히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를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³⁾ 둘째, 바로 그러한 『婦人公論』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해방의 텍스트로서 주로 다루어져 온 『婦人公論』에 실린 ‘남성’ 필자들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라는 점이다.

『婦人公論』은 『中央公論』의 「부인문제특집호」가 호평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16년 중앙공론사에 의해 창간된 일본의 대표적 여성잡지로서,⁴⁾ 주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여권확장’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⁵⁾ 가사 노하우와 정보 등 실용적 지식이나 흥미위주 기사를 실던 『婦人之友』, 『主婦之友』 등과는 방향을 달리 하여, 여성으로서의 삶 자체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화장기 없는 여성잡지’ 혹은 ‘여성잡지답지 않은 여성잡지’라는 표현은⁶⁾ 초기 『婦人公論』의 편집방향의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靑鞆』의 폐간(1916.5)을 전후하여 창간되어 『靑鞆』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위 ‘신여성(新しい女)’ 일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덕택에, 『婦人公論』은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 이치카와 후사에(市川

3) 『婦人公論』에 관한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로서는 中尾香(2009) 『戦後『婦人公論』のエスノグラフィー <進歩の主婦>を生きる』(作品社)를 참고할 만하다.

4) 佐藤バーバラ(2001) 「増刊『近時之婦人問題』と家庭の理念」『雑誌『太陽』と国民文化の形成』, 思文閣出版.

5) 『女性学事典』(2002, 岩波書店)의 『婦人公論』 항목 참조. 특히, 1918년부터 『婦人公論』의 지면을 통해 격렬하게 진행된 ‘모성보호논쟁’과, 1955년에 시작된 ‘주부논쟁’은 유명하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일본 여성사에 있어서 『婦人公論』이 갖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6) 中央公論社(1965) 『中央公論社の八十年』 中央公論社, p.157.

房枝)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 여성해방운동가는 물론,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 같은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로부터 『婦人公論』은 일본 여성해방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4년 1월, 『婦人公論』은 「출판사업령」에 의해 『中央公論』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강제 폐간되었다. 편집진이 독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로서 자체적으로 최후의 <종간호>를 기획, 인쇄공정에 들어갔을 무렵 정보국으로부터 “이렇게 화려한 최후는 있을 수 없다”라는 명령을 받아 일거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일화는, 전시 중 『婦人公論』의 권력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패전의 소문을 들은 시마나카 유사쿠(嶋中勇作) 사장이 바로 잡지 재건을 추진, 전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출판사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中央公論』의 복간에 이어 1946년 4월 『婦人公論』 <재생호> 발행에 이른 것도, 이상과 같은 역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

마쓰다 후미코(松田ふみ子)가 『婦人公論』 복간의 의미에 대해 “패전에 의해 지침을 잃었던 여성들은, 婦人公論의 복간에 의해 비로소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독자들은, 오랜 옛 친구와 재회한 기쁨을 가지고 이를 환영했다”라고 평가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⁷⁾ ‘패전에 의해 지침을 잃었던 여성’들을 향해 『婦人公論』은 정치에 대한 개안(開眼), 해방의 의의 등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고, 한편으로는 식량수급의 전망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나아가 급격히 변동하는 일본의 법률 및 그에 따라 가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성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관해 여성들을 계몽하고자 했다. 새로운 풍조로 대두한 민주주의의 해석 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및 세계정세에 대한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이 알아야 하는 법률, 즉 노동기준법, 아동복지법, 가사심판법 등에 관한 해석도 더해졌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婦人公論』의 창간 및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中央公論』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 지식인이었다

7) 松田ふみ子(1965) 『婦人公論の五十年』 中央公論社、p.175.

8) 松田ふみ子(1965) 『婦人公論の五十年』 中央公論社、pp.176-183.

는 접이며, 실제로 『婦人公論』 지면의 상당부분은 여성해방운동가가 아닌 남성 필진들의 글이 차지하고 있었다. 『婦人公論』의 창간자 시마나가 유사쿠를 비롯 그에 의해 집필을 의뢰받은 필자 다수가 『中央公論』의 필진과 중복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⁹⁾ 『婦人公論』의 지면이 여성들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婦人公論』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여권신장이다. 그것은 나의 신념이다. 이상이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창간자의 여권확장에 대한 신념이 확고던 것은 사실이지만, 『婦人公論』의 기사들이 그러한 신념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었는지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창간 이래 줄곧 여권확장을 외쳐왔던 만큼, 전후 여성해방을 내건 일련의 정 책에 『婦人公論』이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婦人公論』의 편집진 및 일본의 대표적 페미니스트가 포진한 여성 필자들에 한 해서는 당연하다고 해도, 필진의 다수를 점하는 남성 지식인들도 모두 이에 동 조했을지는 의문을 품어봄 직하다. 그들이 아무리 『中央公論』을 중심으로 모인 진보적 인사였다고 해도 여성문제에 공감해서 모인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 후 여성해방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여성들에게 강요되어 온 봉건적 지배 체제 속에 살면서 묵인·동조했거나, 스스로도 가정과 사회에서 그러한 여성의 존재방식에 익숙해졌을 터였다. 여성참정권, 남녀평등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인 여성들을 동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으나, 패전의 충격과 함께 등장한 GHQ의 압도적 힘을 배경으로 남녀평등이 선언된 상황 하에서 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으로부터 본고에서는 점령기(1946~1952) 동안 페미니즘의 대명사인 『婦人公論』에 실린 남성 지식인의 여성 관련 언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갈 것이다. 첫째, 전후 일본의 여성 관련 법률개정의 실 상 및 그에 대한 남성 지식인들의 반응 및 해석을, 주로 그에 대한 당위성과 금 후 여성의 존재방식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살핀다. 둘째, 점령기 다른 분야에

9) 中央公論社 『中央公論社の八十年』, p.156.

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본받아야 할 모델로 등장한 미국의 여성이 그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그려지고 있었는지, 그 표상을 살핀다. 셋째, 전후 자유를 구가하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 지식인들의 인식 혹은 제안과의 계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후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위로부터 급진적인 여성해방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수용한 일본인들의 지지 속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식의 단선적인 이해를 벗어나,¹⁰⁾ 당시 일본인들의 실제적인 인식과 고민을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남성의 여성문제 인식을 이해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이들의 여성 관련 언설을 통해 영향을 받고 그들의 언설 속에 투영된 여성관을 통해 자기인식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던 『婦人公論』의 여성독자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여성해방에 대한 우려와 냉소

2.1. 전후 실시된 여성해방 정책

초기 점령정책에서 보이는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과 노동자 해방을 중시했다는 점으로, 이것은 1945년 10월에 발표된 5대 개혁 중에 “선거권 부여에 의한 일본 부인의 해방”과 “노동조합 결성의 장려”가 가장 먼저 열거되고 있었던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¹¹⁾ GHQ의 강력한 의지에 압도된 일본 의

10) 필자가 전후 점령기 여성정책 및 여성해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후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후루카와 후미에(古河史江)가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婦人公論』을 다루었음을 알게 되었다. 본고는 ‘남성’ 언설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료가 되는 텍스트의 선택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전개방식은 완전히 다르나, 필자의 문제제기가 틀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루카와의 연구를 내용적으로 참고한 부분은 별도의 각주를 통해 밝혔다. 古河史江(2000.3) 「戦後啓蒙期における『婦人公論』(1946-54) - 「女性」の形成と、秩序への編成」 『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6、古河史江(2003) 「戦後『婦人公論』における「女性解放」論」 『歴史評論』636.

11) 西清子(1985) 『占領下の日本婦人政策』 ドメス出版, pp.13-15. 이 외에, 전후 일본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二巻 政治』(1980, ドメス出版),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十巻 婦人問題年表』(1980, ドメス出版), 田中寿美子(1975) 『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一戦』

회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공포함에 따라 남자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여자는 선거권을 25세 이상은 피선거권을 획득,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여성의 첫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1946년 4월 10일에 있었던 전후 첫 총선거에서였다. 여성 유권자 총수 2150만 중 6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남자 투표율은 78%), 여성 입후보자 83인 중 45%에 달하는 39인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된 1947년의 총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의 숫자는 감소하여, 중의원 후보 81인 중 15인, 참의원 후보 16인 중 10인이 당선되는데 그쳤다.¹²⁾

참정권 부여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향한 법적 정비가 1946-48년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¹³⁾ 영원한 전쟁포기와 더불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창한 일본국헌법(1946.11.3)에 기초하여¹⁴⁾ 민법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家)’제도가 폐지되고, 호주권, 가족 내에서의 남성지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력 등을 폐지하여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했다. 아이에 대한 친권도 부부가 평등하게 행사할 것, 재산 상속 시 자녀에 대한 균등분배를 규정했다. 아내들은 더 이상 ‘무능력자’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고, 독립된 인격자로서 자신의 재산 처분도 가능해졌다. 정조의 의무에서도 부부평등 원칙이 적용되어, 부정(不貞)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민법개정(1947.11)과 더불어 아내에게 대해서만 간통죄를 적용하던 형법도 폐지됨으로써, 여성들은 ‘민법전논쟁(1890)’ 이후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⁵⁾ 이에 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균등’과 ‘남녀공학’을 내건 교

後編一』時事通信社、横山文野(2002)『戦後日本の女性政策』勁草書房、豊田真穂(2000)『アメリカ占領下の日本における女性労働改革』、『アメリカ史研究』23、進藤久美子(2004)『ジェンダーで読む日本政治』有斐閣 등을 참조.

12)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十卷 婦人問題年表』p.238. 田中寿美子 『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戦後編』pp.6-8. 지방의원을 선출하거나 혹은 선출될 수 있는 여성의 공민권은 1946년 9월에 실현, 1947년 4월 첫 통일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13) 鹿野政則 『現代日本女性史』、p.8.

14) 헌법 24조에서는 새로운 결혼·가족제도의 근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자의 선택 …… 및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육기본법,¹⁶⁾ “노동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에 있어 남자와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여자 및 연소자’의 보호조항을 담은 노동기준법(1947.4)이 제정되었다. 특히 노동성 부인소년국의 설치(1947.9)는, 이러한 법률적 정비의 결과이자 이를 더욱 보완·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책이었다.

이상은, 일본 여성해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GHQ의 의지가 반영된 전후 일본의 여성정책과 그에 따른 여권신장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당시의 소위 진보적인 남성 지식인들이 법률개정에 의한 여성의 지위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했는지, 또는 독자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법률적 해방과 현실의 괴리

일본의 헌법과 여성의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남성으로서 『婦人公論』에 첫 목소리를 낸 이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자인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였다. 그가 쓴 헌법과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글이 게재된 것은 1946년 6월호로서,¹⁷⁾ 일반적으로 한달 여 전에 잡지가 발행되는 일본의 관행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참여한 전후 첫 총선거(1946.4)가 끝나고 헌법개정초안이 공개되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 정부 내 심의와 수정이 한창이던 때, 혹은 그 직전에 집필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는 먼저 당시까지 헌법과 여성생활 사이에 커다란 간극(溝)이 있었던 것은 메이지헌법이 군벌과 관료, 경찰, 재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여성을 소외시킨 채 남성만의 기본법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관습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했다. ‘부인이 헌법에 무관심했다’고 여성의 과실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 ‘이에(家)’에 갇혀 ‘이에’와 남자의 예속물이자 아내로서는 무능력자로 취급되고 어머니로서는 친권이 부인되는 등, ‘반봉건적 가족제도’를 ‘우리나라 고래의 순풍미숙’이라고 상찬해 온 현실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15) 田中寿美子 『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戦後編』, pp.21-22.

16) 橋本紀子(2009) 「日本国憲法と教育基本法下のジェンダー平等教育」 『ジェンダー視点から戦後史を読む』, 大月書店.

17) 平野義太郎(1946) 「新憲法と女性生活」, 『婦人公論』.

여권확장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남녀평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를 일본인으로서의 애국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헌법 개정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인민의사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의 반수는 부인이기에, 부인 스스로 일본국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가 장래 일본이라는 나라를 담당하여 자손의 번영과 나라의 평화에 관해 국책을 세우 가는 것 …… 국민주권자인 부인의 임무이다. 따라서 부인도 남자와 협력하여 일어서지 않는다면 일본민족은 부흥하지 않는 것이다.¹⁸⁾

히라노는 여성의 해방은 인간성의 회복이나 탈환 이전에, 우선 남성과의 평등·독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남녀평등이라기보다는, 우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한 노력 혹은 애국심에 대한 호소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부터의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것이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여성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지위를 남성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히라노의 견해는 당시가 헌법 초안 공개를 통해 남녀평등이라는 선언이 이루어졌을 뿐 실생활에서 이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의 첫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진 이후라고는 하나, 극히 일부의 운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여성해방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1년 여 후인 1947년 7월호에는, 경제학자 출신 현역 문부대신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誠一郎)의 문장이 『婦人公論』에 게재되었다. ‘신헌법시행식전 후의 소감’이라는 부제가 붙은 ‘해방된 여성들’이라는 글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전공인 경제학적 관점으로부터 여성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먼저 서양의 그리스, 로마, 종교개혁 시대의 여성문제를 개략한 후, ‘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의 자본화가 남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협, 제대로 가정을 영위할 수 없는 남성들을 양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업자본의 발달이

18) 平野義太郎 「新憲法と女性生活」, 생략은 원문에 따름.

여성의 지위를 타락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는 매춘부의 발생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상징이며,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하는 미혼여성이나 과부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건전한 결혼과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자금의 상황에서 양치현모주의를 설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다카하시의 지적은, 반드시 굳이 자본주의의 폐단과 관련지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패전 후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그는 경제적 궁핍을 성(性)과도 관련지어서 설명했는데, 남자에게는 여전히 결혼 외 성생활의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여성에게는 그럴 가능성도 닫혀 있고, 만일의 경우 임신·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궁핍을 생각한다면 여자의 남자에 대한 예속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것이 남녀평등을 내건 신헌법공포를 앞둔 일본의 현역 문부대신이 갖고 있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다.¹⁹⁾

두 달 후에는 조선총독부와 육군성 근무경력이 있는 법제사학자 후지타 쓰구오(藤田嗣雄)가 법률상의 여성해방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신헌법제정에 따른 여성해방의 의미를 긍정하였지만, 더욱 강조한 것은 이것이 결코 “[일본] 부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획득의 노력의 성과’였다. 여기에 우리 부인의 새로운 지위의 특이성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 취약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였다.²⁰⁾ 여성해방을 위한 전전(戰前) 일본 여성들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강조했던 ‘취약한’ 여성해방에 의해 새로이 겪게 될 문제에 관한 것이다.²¹⁾

19) 高橋誠一郎(1947) 「解放された女性たち」、『婦人公論』.

20) 藤田嗣雄(1947) 「婦人の新しい地位と将来」、『婦人公論』 발호와 강조는 필자.

21) 후지타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의 새로운 지위는 ‘남자나 부형 등에 대한 투쟁에서가 아니라, 이들의 이해심 깊은 협력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기에 당분간 많은 희생이 생길 것이라 보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적 반대로서 옛 호주, 조부모, 부모, 또는 남편의 보수적 사상, 친족이나 본가·분가에 관련된 옛 관습 등이 부인의 새로운 지위 수립에 큰 방해가 될 것이었다. 둘째는, 가독상속제도 및 지주제도 등에 의한 방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법률적 조치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셋째,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결혼을 자신의 생활수단으로 삼아 남성에게 의존하는 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지양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무산계급 여성보다 유산계급 여성에게 더욱 해당된다. 넷째, 의식주의 극도의 궁핍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방해하

충분한 기반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여성해방이기에, 그에 따른 마찰과 부작용을 상당 기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후지타 역시도, 다카하시와 마찬가지로 전후의 궁핍한 상황이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생활 곤란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남녀 불균형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한 염려로부터 여성들의 생활난을 지원하기 위한 탁아소·유치원 등의 시설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올드미스의 존재가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을 예측하면서 노년의 주거 및 부양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혜안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시대를 앞선 염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의 여성해방의 타율성으로 인한 약점을 지적하거나,²²⁾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여성해방은 여전히 요원하며 여성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시급하다는 식의, 평등보다는 동정에서 나온 듯한 의견은 후지타 외에도 적지 않은 남성 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²³⁾

그 외에 헌법학자로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徳次郎)도 남녀평등에 관한 기사를 두고했는데, 그 역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서 “남녀의 성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지만 이것이 ‘가정 내의 사적인 일을 규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결혼에서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법률이 상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무엇이 불합리한 차별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당장의 남녀평등 실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²⁴⁾

고 있으나, 이것은 시간과 함께 점차 해소될 것이다.

22) 鈴木文史朗(1949) 「男女同權の意味するもの」 『婦人公論』、 蟬山政道(1950) 「女性の政治的關心を阻むもの」 『婦人公論』.

23) 다카하시, 후지타 뿐 아니라 우치노(内野薫, 1947)의 「犠牲にたおれる主婦」 『婦人公論』를 비롯, 다수의 글에서 유사한 주장이 발견된다.

24) 金森徳次郎(1948) 「男女等価値論」 『婦人公論』.

2.3.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냉소

전후 여성해방의 상징적인 사건은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따른 의회 진출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정비 부족, 경제적 궁핍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에 이르는 요원하다고 보았던 부정적 전망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 정치인을 향한 시선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준비부족을 지적하면서 여성 참정권 부여는 시기상조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잇따랐고,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비치기는 여성참정권을 주장해온 여성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²⁵⁾

우려의 시선은 중앙공론사 내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 『中央公論』의 편집주간과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진보적 정치학자 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는, 일본 여성의 선거권을 “달을 채우지 못한 분만(月足らずの分娩)” “미숙한 채 떨어진 과실(未熟のまま落ちた果実)”에 비유했다.²⁶⁾ 만일 이것이 여성 자신들의 손에 의해 획득된 것이었다라면 여성의 정치적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을 것이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너무 간단히 주어져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정치적 관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권위와 전통에 충실한 일본 여성이 종순(從順)한 결과라는 것으로, 얼마나 남편의 영향을 벗어난 자주적인 투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정도였다.²⁷⁾

25) 예를 들어 여성운동에 매진한 작가이자, 공산당 지도자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의 아내이기도 했던 미야모토 유리코 역시 첫 여성 투표권 행사 직후의 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성 후보가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더 높은 당선률을 기록한 것은 오히려 일본 여성들의 정치수준이 낮음을 보여준 것이자, 선거제도의 불합리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의외의 결과라고 해석했다(宮本百合子(1946) 「一票の教訓」、『婦人公論』).

26) 蠟山政道(1950) 「女性の政治的関心を阻むもの」、『婦人公論』.

27) 로야마는, 남성은 본능적으로 권력욕, 명예욕, 투쟁의식, 이해타산 등이 강한 반면, 여성은 정치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그 원인에 대해 첫째는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일본에서 정치의 단위는 가족이지 개인이 아니며, 정치문제는 외부의 일로 간주하여 가족을 대표하는 ‘주인(主人)’이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이 부재한 때문인데, 특히 가사일에 쫓기는 여성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며, 가족제도와 교육부재라는 정신적·심리적 구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蠟山政道 「女性の政治的関心を阻むもの」).

로야미는 ‘가정의 일종에 불과한 국가의 정치’에 대해 여성이 남자에 지지 않는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의 천분(天分)을 도입하여 남자가 할 수 없는 정치를 하는 것이 여성의 임무라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문장을 끝맺고 있지만, 당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그보다 좀 더 비관적이었던 듯하다. 일본 정치풍자 만평의 개척자라 불리는 만화가 곤도 히데조(近藤日出造)가 가상의 여성의원 입장에서 현실을 풍자한 글을 보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의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부인의원은 정치적 견해, 역량은 개똥(クソクラエ)…… 실례, 요컨대 전혀 무위무능한 백치 그 자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가십 이외에, 우리 이름이 일일신문 정치면에 게재된 예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받는 대부분의 주부들처럼] 국회라는 저 뽀족한 탑 아래 함께 사는 남자의 원들에게 짓밟혀 썩소리도 못하는…… 불쌍한 여자들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선거구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남녀동권, 인권존중을 노래한 헌법(けんぽう)은, 이 국회 안에서 뒤집어져서 봉건(ホーケン)으로 변해버렸습니다.²⁸⁾

만평작가로서의 비약과 희화화를 감안해도, 당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알기에는 충분하다. 곤도는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여성의원을 ‘쓸모없는 국회의 액세서리’라고 무시하는 남성에게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칼날은 남성을 향해 겨누었지만, 여성의원들을 향한 두 가지 제언을 보면 그가 실제로 조롱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다뤄주지 않고, 무슨 말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것은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뿐, 이라고 우울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문득 제 머리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의원 일동이 의논하여 얼굴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용건이 있든 없든 튼이 있는 대로 원내(院内)를 하느작하느작 행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남성의원들 너리에 항상 ‘여자’라는 존재가 어른어른 하지 않을까요. 어른어른하면 참작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실행불가능하다면] 부부의원, 즉 원앙의원을 불허하는 안(案)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28) 近藤日出造(1950) 『われもし婦人代議士なりせば』、『婦人公論』. 첫 번째 말줄임표를 제외한 생략과 괄호는 필자.

함께 나돌아 다니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 둘째, '어차피 남편 맘대로, 부창부수, 나라보다는 남편 사랑을 우선하는 게 당연하니까, 잘난 체 하지만 여자는 어차피 그런 것'이니까.²⁹⁾

물론 곤도가 진지하게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제대로 활약하기는커녕 동료 의원들과 언론에 의해 놀림감이 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당분간은 이를 타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시 여성의 투표권 획득 및 정계진출에 대한 남성들, 그것도 비교적 진보적인 남성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³⁰⁾

Ⅲ. 미국 여성의 표상 : 가사해방과 남녀평등

전전의 가치관이 모두 붕괴하고, 새로운 이념을 찾아야 하는 점령기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추구할 하나의 모범으로서 모방한 대상이 '미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婦人公論』의 남성들이 여성문제에 관한 모범으로서 미국 여성의 생활 및 관련 법률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개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나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당시 일본 여성이 추구해야 할 모범이자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미국 여성의 표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³¹⁾

29) 近藤日出造 「われもし婦人代議士なりせば」, 생략과 괄호는 필자.

30) 또 다른 필자는, 여성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남편이나 오빠를 대신하여 나온 듯 하며 가정주부인 편이 더 어울렸을 것이라고 탄식하였다. “진정한 남녀동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인 의원이 먼저 개성에 눈을 뜬, 밝고 힘이 넘치는 여성인 것이 우선 제일의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加藤彪二(1949) 「夫を凌ぐ女たち」 『婦人公論』).

31) 이 외에도 소련과 중공 등,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여성정책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특히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보이지만, 실제 얼마나 실현되고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알고 적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平野義太郎 「新憲法と女性生活」 坂田二郎(1946) 「ソヴェートの女性生活」 『婦人公論』 등.

당시 전후 일본 여성들에게 소개되는 미국의 이미지 중 가장 강렬한 것은 당연히 ‘여성해방’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참여’와 ‘가사해방’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을 방문한 일본 여성들은 주로 미국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반면, 생활의 편리함은 남성 필자들에 의해 특별히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실제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눈에는 그 실상이 좀 더 잘 보이는 반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몇 가지 사례에 지나치게 깊은 인상을 받아 이를 과장,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때문이 아닐까. 그 배후에는, 가사노동이야말로 여성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부정적인 행위로만 인식했던 당시 일부 진보적 남성들의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³²⁾ 예를 들어, 192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미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화가 데라다 다케오(寺田竹雄)는 ‘남편’들로 구성된 좌담회 중 여성해방과 가사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여성의 해방은 뭐니뭐니해도 의식주로부터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합리화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든 다 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기 방을 갖지 못한 것이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의 하나라 생각한다.³³⁾

여성이 자기 방을 갖는 것을 여성해방과 연결시킨 발상은 신선하여 평가할 만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이라든가 ‘남자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여성’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은, 그가 전하는 미국 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미국에서 가사노동의 편리함을 인상 깊게 기억한 것은 빙설(氷雪) 연구의 권위자로서, 유럽 유학과 미국·캐나다 등의 방문 경험이 있는 물리학자 나카야 우키치로(中谷宇吉郎)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婦人公論』에 미국 여성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글을 투고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미국 주부들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즉 얼마나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32) 古河史江(1946-54)「戦後啓蒙期における『婦人公論』-「女性」の形成と秩序への編成」, pp.103-104.

33) 「座談会 妻の自由と幸福のために」, 『婦人公論』(1948.8). 강조는 필자.

가정부를 쓰지 않고, 자신도 밖으로 일하러 나가기에 미국 주부의 생활은 매우 바쁘다. 대신 집안의 설비는 어디든 놀랄 만큼 완비되어 있다. 특히 부엌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와 세탁기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오븐이나 요리대도 물론 완비되어 있다. 34)

이어지는 묘사에 따르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냉동음식이 발달되어 있으며, 세탁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은 보통 샐러리맨 가정에서도 구비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온수와 난방시설도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집안에서 부엌을 가장 깨끗하고 멋진 공간으로 만든 것은 ‘너무나도 문화적인 향기’가 나는 일이었다. 일본인에게는 머나먼 동경의 대상인 미국 여성들의 편리한 생활 시스템을, 나카야는 ‘매우 적극적’인 생활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정의 설비를 개선하여, 그것으로 생활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생겨난 시간을 밖에서 일에 사용, 다시 돈을 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가계를 풍성하게 하고, 동시에 국가전체의 생산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에 미국여성은 완벽하게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에는 ‘부인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남녀동권이 이루어진 ‘미국인의 생활’ 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³⁵⁾

가사의 편리함에서 더 나아가, 미국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갖는 지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앞서도 소개한, 가나모리 도쿠지로였다. 그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미국은 ‘부인존중의 나라니까, 절대로 무례를 범해서 경멸을 자초하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엘리베이터를 부인과 함께 타게 되면 반드시 모자를 벗을 것, 타거나 내릴 때는 부인에게 순서를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를 들었다. 이러한 일화만으로도 당시 일본 남성들의 미국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가나모리가 미국 가정을 방문한 후의 소감은 더욱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에 대한

34) 中谷宇吉郎(1950) 『アメリカの婦人生活』 『婦人公論』.

35) 中谷宇吉郎 『アメリカの婦人生活』. 미국의 가정에 대한 과장된 환상을 경계해서인지, 『婦人公論』에서는 미국인 여성들의 대화를 담은 『アメリカ娘座談會』 (1950.7)를 게재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미국 여성들이 시간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편리한 설비의 사용 뿐 아니라, 상부상조와 사회단체의 도움, 남편의 협조를 얻어 미리 일정을 조절하는 등의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예우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식으로라면 가정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과연 양성평등의 최저기준을 채울 수나 있겠는가 걱정’될 지경이었지만, 실제 가정을 방문해보니 실상은 또 다른 것이었다.

가정을 방문해서 저녁을 대접받아 보니, 이럴 수가. 여존남비의 모습은 거의 없고, 양자는 거의 보기 좋게 평등한 지위에서 유쾌하게 접대해 준다. 그렇다고 남존여비는 아니지만, 또한 그 반대도 아니다. 가정마다의 모습은 가풍의 차이는 있지만 적당한 분업이다…… 대개 요리의 종류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식탁 위에 차려두면 주부가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고, 주부가 담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요리의 부족은 주부의 말솜씨로 보충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다소의 분업은 있지만 완전히 평등한 듯하다.³⁶⁾

그가 보기에 미국 여성들은 최근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후 이제는 ‘직업면에서도 공직면에서도 완전히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이 군대 장교로까지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가사의 편리함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과는 달리,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까지 진출하는 ‘중성화’ 혹은 일인이역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부인해방은 올바른 일이지만, 해방의 정도를 넘어서 양성의 동일화를 의도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감출 수 없었다.³⁷⁾

대부분의 남성들이 단편적인 인상이나 지식을 과장해서 풀어내는데 급급했던 것에 비해, 미국 여성의 가정과 직업에 관해 전후 일본 여성의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비교적 현실적으로 풀어낸 것은 고리쓰(共立)여대 교수인 아카사카 시즈야(赤坂静也)였다. 그는 미국 여성이 일하는 것은 경제적 ‘필요’ 때문이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여성으로서의 ‘권리나 특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

36)金森徳次郎(1950)「あめりか婦人の多様性格」『婦人公論』. 생략은 필자.

37) 가나모리는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미국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여성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남성이 적어졌기에, 미혼 직업여성의 발생은 막을 수 없다. 둘째, 비서나 사무원으로 일하는 여성 중 기혼자의 경우, 현재에도 남편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이들은 주로 도시에 집중된다. 셋째, 직업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직업적으로 중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성격은 주로 의복이나 화장 같은 것으로 발산된다. 넷째, 중성여성들은 노년기가 되면 어찌될 것인가가 문제지만, 어떻게든 해결 될 것이라 예상. 다섯째, 생활이 크게 변한 만큼, 양성간의 도덕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金森徳次郎「あめりか婦人の多様性格」).

다. 즉, 남편의 수입이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되어, 자율적 책임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가족과 함께 분담하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가정의 필요에 의해 부부가 서로 인정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 세기 전에 시작된 민주주의의 기초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인간은 개인으로서 최상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여성 역시 가정에서 수입을 착취당하는 노예에 불과하나, 민주주의적 가족제도가 있기에 비로소 일하는 주부의 도덕적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미국 여성들은 스스로 이를 획득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그가 미국의 사정을 살핀 후에 일본 여성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미국의 가사도구의 편리함을 부러워하기보다 ‘여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개선’을 하려는 자세를 더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 즉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이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³⁸⁾

이상과 같이 이들 남성들의 미국 여성에 대한 주된 관심은 ‘여성해방’에 두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직업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서 민주주의의 정신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버튼 하나로 다 완성되는’ 가사 도구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여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그 외에 당사자 연애와 성을 중심으로 하는 결혼문화 등에 대한 소개 등도 이루어지지만,³⁹⁾ 여성과 관련된 당시 남성 지식인들의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는 이상과 같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8) 赤坂静也(1950) 「働く女性と家庭の問題」、『婦人公論』.

39) 전후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한 명으로, 일본의 가족제도 등을 연구하기도 했던 도쿄대 법학 교수 가와시마 다케요시는 결혼에 앞서 남녀 당사자의 연애가 중시되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상담소나 서적이 성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생활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성교육 등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결혼을 둘러싼 여러 현상들을 일본이 따라야 할 긍정적인 모델로서 소개하고 있다(川島武宜(1950) 「戦後アメリカの結婚の生態」、『婦人公論』).

IV. 새로운 시대 일본 여성을 위한 계몽

이상에서 여성에 관한 법률적 정비, 그리고 추구해야할 모델로서의 미국의 사례를 살핀 것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전후 일본 여성의 현상(現狀)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는 여성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사 중에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첫째, 여성들을 향해 요구한 각성의 내용, 둘째, 주부와 아내,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상, 셋째, 성(性)과 산아조절 등의 세 항목이다.

4.1. 여성의 자각과 실천

『婦人公論』을 통해 여성들을 향해 의미 있는 조언을 남긴 남성 중에는 유명 영화감독인 구로사와 아키라(黒沢明)의 이름이 있다. 그는 일본의 남성들이 ‘여성스러움(女らしさ)’이라는 말을 무기로 교묘히 여성들을 억압해온 것을, 일본의 권력이 ‘일본인다움(日本人らしさ)’이라는 말을 무기로 교묘히 국민들을 억압해온 것에 비유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후 또 다시 ‘새로운 여성스러움(新しい女らしさ)’ 운운하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 것이다. 그 역시도 여성문제는 빈곤과 관련되어 있기에 사회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여성들도 ‘여성스러움’이라는 말에 얽매이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생명력 있게 성장해가는 삶을 살 것을 기대했다. 어떠한 ‘스러움’을 찾는 소극적 자세로는 영원히 자신의 본질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른, 사회적·역사적 의미에서 여성의 각성을 주문한 이로서는 니시다(西田) 철학을 계승한 철학자 야나기다 겐주로(柳田謙十郎)와 역사학자인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専祿)를 들 수 있을 듯하다. 1950년, 이른바 ‘역코스’의 조짐이 명확해지던 시기, 야나기다는 세계정세의 급변에 대응하여 여성들에게도 도덕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특수하고 차별적인 여성도

40) 黒沢明(1947) 『新しい女らしさ』 『婦人公論』.

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는 겸양이나 신중함과 같이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폐지해야 하고 어떤 차별이나 지배도 없는 남녀공통의 인간적 도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에게 남성들을 향해 정당한 항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둘째는, 무게 중심을 “개인 내면의 주관도덕·양심도덕으로부터 사회적·역사적 실천의 도덕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여성은 주로 가정 안에만 있기에, 그들의 도덕도 개인의 인격 완성만을 목표로 하는 주관적·내면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에게는 사회의식, 역사적 감각, 시대에 대한 센스가 결여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전쟁중단, 파쇼저지, 사회불안 저지와 같은 사회적 실천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윤리로부터 저항의 윤리로”, 즉 진정한 사랑은 타협이 아니라 검(劍)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조언이었다. 강인한 생명을 가진 악과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와 생명을 건 저항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의 에너지는 바로 대담하게 저항할 수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¹⁾

우에하라는 일본의 강화조약을 앞둔 시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본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그는 여성문제가 강화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등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함이 충분히 의식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현상(現狀) 자체가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 그 자체라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문제가 역사적,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정 후 사회·정치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 후, 여성은 지금도 여전히 열위(劣位)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여성 멸시의 심리가 매우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으며, 남성에게 의해서 뿐 아니라 심지어 여성 자신에 의해서도 그러함을 한탄했다. 그는 강화조약 조인 후이자 의회 비준을 앞둔 지금의 시점이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 자신이 얼마나 강화문제를 의식하고 어떤 자세와 움직임을 취하는가가 장래 여성의 지위를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강화문제에 관한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존

41) 柳田謙十郎(1950) 「新しい時代の倫理のために」『婦人公論』.

엄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⁴²⁾

야나기다와 우에하라는 전후 일본여성들의 급격한 권위 신장에 대한 염려 혹은 시기상조론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시혜로서가 아닌 남녀공통의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나아가 여성에게 사회적 제문제에 대한 저항과 실천적 양심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강화문제와 같은 국가적 대사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발언할 것은 촉구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남성 필자들에 비해 여성문제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식과 이해를 보여줬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가정·부부관계에 대한 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로야마 마사미치는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실제적 지위향상은 쉽지 않으리라 우려했는데, 그 구체적인 우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여성을 둘러싼 “질곡은 그 반면에 안정이기도 하고, 제도는 또 동시에 보호라는 면을 함께 갖는 것”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해방론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던 봉건적인 ‘이에(家)’제도가 안정과 보호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이제 개인과 여성을 ‘이에’로부터 해방시킨 국가는 당연히 그 ‘이에’와 ‘호주’를 대신하여, 개인과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도, 부부와 가정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특히 여성이 가정교육의 책임을 맡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 여성이 ‘이에’에서 해방되는 대신에 안게 될 새로운 부담들을 열거했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조자 또는 협력자로서의 부인이, 그 천성의 미와 애정과 재능에 의해 가족생활 한 편의 지주가 되는 것은, 부인의 자유나 평등과 조금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미와 지(智)와 덕이 그 자유와 평등에 의해 자라고 또 발휘되는 것은 오히려 남성과의 바른 관계에서 양자의 원기와 명예와 권위를 조장하는 유기적 조화의 원천이 된다.⁴³⁾

42) 上原専祿(1951) 「女性の新しい自覚のために」『婦人公論』.

43) 蜷山政道(1946) 「「家」を出る女性」『婦人公論』.

라고 하여, ‘이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여성이 나아가야 할 길로서, 오히려 가정에서의 새로운 역할, 남성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로아마가 단순 기고자가 아니라 중앙공론사의 편집인, 부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사실상 『婦人公論』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에게 남성의 조력자로서 머물러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婦人公論』을 만드는 중앙공론사 사내에서 제법 힘을 얻고 있었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철학자 다카쿠와 스미오(高桑純夫)는 부부관계에 관한 한 좌담회에서, 그 동안 일본인이 ‘애정을 단지 동물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자연’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나의 관계가 생긴다면 그것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는 지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⁴⁴⁾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새로운 애정’관은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데, “서로의 결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싸안고 깊은 애정으로까지 키워나가는, 그러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일본인의 지금까지의 애정은 틀린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전과 같이 가부장적인 제도나 결혼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남녀 서로 간의 친밀한 애정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당시의 남성으로서는 제법 전향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당시가 과도할 정도로 자유주의 풍조가 휩쓸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이고 진부하게 읽힐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제안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언이라기보다는 법률 개정에 의해 더 이상은 남편들의 외도와 일탈을 묵인·인내할 이유가 없어진 주부들을 향해, 입지가 좁아진 남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4.3. 성과 정조를 둘러싼 논쟁

전후 일본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광풍이 불면서 성에 대한 인식에도 혼란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한동안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다. “오랜 전쟁 동안 증산증산해서 모든 시간을 증산을 위해 바쳐야 했던 발육 왕성한 젊은 아가씨들은, 지금 이러한 혼란의 상태

44) 「座談會 夫婦の愛情」, 『婦人公論』(1948.11). 생략은 필자.

중에 내동댕이쳐져 자신을 스스로 지킬 만큼의 윤리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은,⁴⁵⁾ 바로 점령기 일본의 여성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과 사회에서의 과도한 규율에 얽매여왔던 여성들이 전후 자유를 구가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염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했는데, 이는 『婦人公論』의 지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정조’라는 개념을 매개로 이뤄졌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천이자 경제학자로 유명한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는 일본에서 정조관념이 흔들리는 원인으로서 전시중의 긴장이 느슨해진 것, 전쟁 중 개인의 도덕이나 흥미나 교양의 함양에 소홀했던 것, 전시중 내핍생활에 대한 반동으로서 내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가 일어난 것, 전시중 여성이 해방되어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 등을 들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정신적 훈련이 수반되지 않았기에 자유가 방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전후 성윤리에 관한 그의 진단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만큼 성교 정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그의 결혼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결혼은 부부의 전인격적인 결합으로, 그 근저는 사랑이다 …… 즉 결혼에 있어서는 신체적 관계는 전인격적 결합의 일부이며, 신체적 관계만이 분리되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전인격적 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체적 관계만으로 독립의 의미를 갖게 하는 행위가 음행이다. 신체적 관계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거나 혹은 정조 관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전인격적 사랑의 유무가 결혼과 음행을 구별하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야나이하라는 정조란 “인간의 신체가 성령의 궁(宮)이며, 인격과 불가분하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부부 이외의 사람에게 자기 신체를 허락한다는 것은 정조의 방기이며, 설령 부부사이라고 해도 색정을 만족하는 도구로 상대를 보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음행, 즉 순결의 방기다. 즉 정조 관념의 중심은 인격의 존중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로,⁴⁷⁾ 영(인격)과 육(신체)이 합

45) 「座談會 産兒調節はなぜ必要か」『婦人公論』(1947.3).

46) 矢内原忠雄(1947) 「淪落を救うもの」『婦人公論』. 생략은 필자.

47) 矢内原忠雄(1947) 「淪落を救うもの」『婦人公論』.

계해야 한다는 자신의 정조관을 피력했다.

야나이하라의 의견이 보수적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것이었다면, 진보적인 사회운동가였던 다카쿠라 테루(タカクラ・テル)는 ‘처녀성’에 집착하는 풍조가 원시토템의 유산이 봉건사회에 정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비판했다.

‘처녀성’은 봉건적 도덕이 여자에게만 요구한 ‘정조’와 같은 것이다. ‘처녀성’은 결혼 전의 ‘정조’이며 ‘정조’는 결혼 후의 ‘처녀성’이다. 봉건제는 여자를 사실상의 노예로서 ‘이에’에 묶었다. 그리고 ‘정조’라는 도덕으로 묶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처녀성’이 순결한 것으로 중시되었다 …… 결혼부터 먼저 말하자면, 처녀가 ‘순결’한 것이 아니다. 처녀에도 순결한 이도 순결하지 않은 이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처녀가 아닌 여자에게도, 순결한 이가 얼마라도 있다. ‘순결’은 처녀인가 처녀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녀성 또는 성생활의 취급방식 안에 있다.⁴⁸⁾

그는 어느 분야에서든 경험자를 우대할 것과 달리 성생활에 있어서만 경험이 없는 여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결혼하고, 마음도 없이 아이를 낳는” 현실이 본질적으로 강간이나 음란과 무엇과 다른가라고 되묻고 있다. 야나이하라와 다카쿠라는 기독교인과 공산당이라는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있었음에도, 정조와 순결이라는 성을 바라보는데 있어서는 형식에 집착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본질과 내용을 보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나이하라는 당시의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풍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다카쿠라는 성생활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충격을 주고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나 처녀성 같은 추상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성행위 자체를 주목한 학자들의 논의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의학박사 미야모토 시노부(宮本忍)는, “딸들이 결혼까지 처녀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의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선에 의한 애정 없는 결혼은 반대하지만 연애를 할 경우에도 성적 결합이라는 최후의 선은 넘지 못하게 할 것을 권했다. 그는 이것이 연애와 결혼을 위한 이성간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성병의 방지를 위해서도

48) 타카쿠라・테루(1947) 「処女は純潔ではない」 『婦人公論』. 생략은 필자.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남성의 극기와 여성의 이성적 애정에 의해” 태어나는 “새로운 성의 모델”을 주장했다. “연애라는 정신적 결합으로부터 출발하여 결혼을 매개로한 성적 결합으로 향하는 것이 인간성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⁴⁹⁾

바로 다음 호에는 임상심리학자인 도가와 유키오(戸川行男)의 반박글이 실렸다. 그는, 성생활은 본능에 속한 행위로서 이를 놓고 신성과 불의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결혼은 성생활의 결과로서 아이를 키울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아이를 원치 않는 성생활이 부인될 이유는 없었다. 영양이 없음에도 차나 과자를 먹는 것처럼, 아이를 원하지 않는 향락을 위한 성생활도 부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유부남인 자신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잔 경우, 그것은 정조를 파기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며, 자신은 아내에게 다른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를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는 “일부일처는, 적어도 나의 경우, 정조가 아니다. 나는 모자를 사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쓴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비유로 자신의 부부관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행위 제지에는 동의하는데, 이것도 물론 정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신 발전과 위생에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그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비난은 근대적 합리주의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성의 문제를 도덕이 아닌 위생과 습관의 문제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⁵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이 겪어야 했던 혼란 가운데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도 한 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점령기 『婦人公論』에 나타난 성과 정조에 관한 대립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수적인 기독교적 입장에서부터 배우자를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모자’에 비유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까지, 각 입장이 폭넓게 게재되었다.

49) 宮本忍(1949) 『処女と純潔』 『婦人公論』.

50) 戸川行男(1949) 『貞操はいらない』 『婦人公論』.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후 일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풍조 가운데 남녀평등, 여성해방을 위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기상조, 혹은 탁상행정에 그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실제 전후 혼란 속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동향은, 근대 일본의 여성사에서 여성해방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여성잡지인 『婦人公論』에 실린 남성들의 언설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여성해방의 지지자여야 할 『婦人公論』의 지면에 드러나는 불안과 주저함은, 그 외의 일반 혹은 보수적 여론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근대를 통해 일본의 여성해방운동가들이 추구해왔던 것들, 참정권을 비롯한 남성과 동등한 여러 권리들은 패전의 충격과 함께 일거에 주어졌다. 그러나 제도의 개정과 외부 권력의 선언이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일본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婦人公論』의 지면에서도 여성해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이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당위적으로는 동의하는 시기상조론이 주를 이루었으나, 심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여성관에 입각하여 당시의 여성해방 풍조에 대해 이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응의 방식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금후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점령기 일본에서의 여성을 둘러싼 실상(實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의 시각과 함께 고찰하여 전후 일본의 지식인 사회 전반의 인식에까지 시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부터, 그동안 『婦人公論』이라는 매체, 그리고 ‘전후 점령기’라는 시기가 무조건적으로 ‘여성해방’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본고의 일차적인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婦人公論』中央公論社.

ウルリ케·ヴェール(2001)「大正初期の総合雑誌と「婦人問題」」『雑誌『太陽』と国民文化の形成』思文閣出版.

加納実紀代(2005)『戦後史とジェンダーT』インパクト出版社.

鹿野政則(2004)『現代日本女性史』有斐閣.

佐藤バーバラ(2001)「増刊「近時之婦人問題」と家庭の理念」『雑誌『太陽』と国民文化の形成』思文閣出版.

スーザン·J·ファー(1987)「女性の権利をめぐる政治」坂本義和編『日本占領の研究』東京大学出版会.

進藤久美子(2004)『ジェンダーで読む日本政治』有斐閣.

鈴木裕子(1995)『女と<戦後50年>』未来社.

田中寿美子(1975)『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戦後編—』時事通信社.

中央公論社(1965)『中央公論社の八十年』中央公論社.

中尾香(2009)『戦後『婦人公論』のエスノグラフィー—<進歩的主婦>を生きる』作品社.

西清子(1985)『占領下の日本婦人政策』ドメス出版.

橋本紀子(2009)「日本国憲法と教育基本法下のジェンダー平等教育」『ジェンダー視点から戦後史を読む』大月書店.

古河史江(2000)「戦後啓蒙期における『婦人公論』(1946—54)—「女性」の形成と、秩序への編成」『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6.

古河史江(2003)「戦後『婦人公論』における「女性解放」論」『歴史評論』636.

松田ふみ子(1965)『婦人公論の五十年』中央公論社.

横山文野(2002)『戦後日本の女性政策』勁草書房.

❖ 투고일 : 2010. 12. 31.

❖ 심사일 : 2011. 01. 31.

❖ 심사완료일 : 2011. 02. 10.